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와 그리스의 민주제 이행, 그리고 유럽통합

한국외대 윤희두

I. 머리말

1973년 11월 14일 아테네 과학기술대학교(Εθνικό Μετσόβιο Πολυτεχνείο) 캠퍼스 안에는 요르고스 파파도풀로스(Γεώργιος Παπαδόπουλος)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그리스의 대학생들이 운집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아테네 과학기술대학의 학생이었던 마리아 다마나키(Μαρία Δαμανάκη)가 현장에서 행한 연설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울려 퍼졌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이내 거리로 뛰쳐나오며 본격적인 반독재 시위가 촉발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1월 17일이 되자, 파파도풀로스는 무장탱크를 동원하여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²⁾

무엇보다도 이날의 사건은 앞으로 전개되는 범국민적 그리스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그리스의 민주화 운동이 탄력을 받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듬해인 1974년에 군부독재체제는 마침내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이후 그리스는 군부세력의 재집권을 방지하고, 확실한 민주제의 정착을 위해 신속한 민주화 이행과정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오늘날 그리스 군부독재의 종식 및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면 있어서, 1973년 아테네 과학기술대학의 사건을 비롯한 그리스 내부로부터 촉발된 민주화 운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내부적 요인의 중요성 하나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층위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에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착되어가는 과정 속에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들 또한 결정적 국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는 오랜 시간 그리스 민주화에 방해가 되어온 근본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준 외부적 요인을 2차 대전 이후 그리스와 유럽통합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여기 아테네 공과대학에 모인 그리스인들이여, 이 곳은 독재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당신과 우리의 공통된 투쟁을 전달하는 깃발입니다.”

2) 군부독재정부는 처음에 강경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이후에 이루어진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캠퍼스 밖에서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스는 1961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의 경제제휴 협정을 시작으로, 1981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³⁾에 정식 가입하며, 그 누구보다도 유럽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국가였다.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은 그리스의 군부독재종식 및 민주화 이행기와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리스는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1975년 EC에 정식 가입을 요청하였고, 그리스의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과 민주주의적 요소는 협상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며 필자는 본고에서 1961년부터 시작되어 1981년에 완료되는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과정을 민주화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전체적인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한 그리스의 정치가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Κωνσταντίνος Γ. Καραμανλής)⁵⁾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1961년 제휴협정과 1981년 정식 가입을 기획하고 주도한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1974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민주화 이행기의 총리를 역임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역사를 통해 반복된 그리스의 민주적 위기현상을 유럽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였고, 따라서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과정에는 그리스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의 고민과 정치적 역할이 드러나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 필자는 카라만리스를 매개로하여,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과 민주화 과정이 연동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럽경제공동체와의 제휴협정과 민주화의 기반 형성(1961)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한 외세의 내정간섭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온 그리스의 대표적인 병폐현상이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그리스 내의 군부세력 및 군주정을 이용하여 그리스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반복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왔다. 다시 말해, 만성적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외세의 반복적 개입은 그리스의 민주제적 기반형성을 방해해온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및 이어진 그리스 내전(ο Εμφύλιος Πόλεμος, 1946-1949)은 이러한 그리스의 정치·경제적 예측관계를 더욱 심화 시켰다.⁶⁾ 그리스는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복구하

3) 본고에서 필자는 ‘유럽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1967년 이후 형성된 기구로서의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와 일반적으로 유럽의 정치통합체를 일컫는 의미의 유럽공동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4) 그리스는 덴마크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 이어 10번째로 유럽공동체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이는 1986년에 이루어진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보다도 앞서는 것이었다.

5)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는 1955년-1963년과 1974년-1980년에 그리스의 총리를 역임하였고, 1980년-1985년과, 1990년-1995년에는 그리스의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다.

6) 2차 대전 동안 그리스의 약 40만 가구 및 국토 안에 있는 절반 이상의 도로가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73%의 상업 선박 및 66%의 육지 운송수단 또한 손실되었고, 60%의 대농장 가축을 잃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회생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 도심지역의 실업률은 50%까지 치솟았으며, 인플레이션은 견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과적으로 2차 대전 직후

는 과정에서 또 다시 대규모 원조에 의존해야만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후 그리스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였다.⁷⁾ 구체적으로 미국은 마셜플랜(Marshall Plan)⁸⁾에 의한 대규모의 경제 원조를 통해 그리스를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권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였다.⁹⁾ 이를 통해 그리스는 자국의 경제적 빈곤상황을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¹⁰⁾, 불행하게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예측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에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 및 자문을 위해 파견되었던 미국의 원조사절단(American Mission for Aid to Greece, AMAG)은 그리스 경제의 전 부문을 통제하였고,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의 의존성은 점차적으로 심화되었다.¹¹⁾

이와 같은 경제적 예측관계는 이내 미국의 심각한 정치적 개입을 야기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그리스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선거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자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위한 친미(親美)정권을 창출하였다.¹²⁾ 특히 미국은 1952년 선거부터 CIA 요원들을 대량으로 그리스에 투입하며¹³⁾ 폭력 및 부정선거를 도모하였고, 이를 통해 그리스의 선거 제도는 민주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에 의한 그리스의 예측관계는 이후 미·소 냉전의 심화와 함께 더욱 공고해졌으며,¹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리스의 민주주의적 구

-
- 그리스의 경제 복구 및 재건을 위해 필요한 예상 비용은 3,172백만 달러의 규모로 책정되었다. Christina. Politi,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6-64", *Europe in the Cold War*, p. 2.
- 7) 그리스는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곧바로 이어진 끔찍한 내전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1947) 선언을 통해 강력한 반공의지를 표명하며 그리스 내전에 개입하면서, 그리스는 전후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 8) 이른 바 유럽 부흥 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의 일환으로 실행된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경제재건, 원조 계획이다
- 9) 미국은 마셜플랜을 통해 1948년 4월 그리스에 649백만 달러의 원조를 시작으로 1952년 6월 까지 706.7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1950년에 이르러 마셜플랜의 원조 금액은 그리스 전체 GDP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스 경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Paris, Gkartzonikas, "The effects of the Marshall Plan in Greece, Turkey and Portugal", Greek Foreign Affairs Council, p. 4.
- 10) 마셜플랜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 원조는 단기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그리스의 여러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먼저 그리스는 2차 대전과 내전 시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기본적인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지역에 필요한 농기구 및 운송 수단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 11) 무엇보다도 이는 전후 미·소 냉전체제의 심화에 기인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조사절단은 그리스의 군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켰다. 실제로 1952년부터 1953년까지 그리스 정부의 군비는 전체 예산의 약 42% 정도를 차지하면서, 같은 기간 터키의 33%, 이탈리아의 23%와 비교하여 매우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비 예산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리스 정부는 전쟁 난민들을 위한 주택의 확보 및 물자 지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조사절단의 경제적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리스는 미국과의 쌍무적 무역관계 수립을 강요받았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높은 관세를 통해 미국의 수출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했고, 외부국가와의 다양한 무역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Politi, Ibid, p. 8.
- 12) 미국은 그리스 내에 좌파 정당이 득세하고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비례대표제'로 치러진 1950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진출이 활발해지자, 1952년 선거에서 우익 정당의 진출에 유리한 '다수대표제'로 그리스의 선거제도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Christos. Kassimeris, "United States Intervention in Post-War Greek Elections : From Civil War to Dictatorship", *Diplomacy & Statecraft*(2009), p. 684.
- 13) Politi, Ibid. p. 10
- 14) 전후 미·소 냉전에 의한 체제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미국은 반공을 빌미로 그리스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리스는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병을 단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그리스는 1952년 미국의 주도로 터키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면

조와 기능은 심각히 파괴되어갔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1955년 그리스 총리에 취임한¹⁵⁾ 카라만리스는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 온 그리스의 민주적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의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에 민주제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의 반복적인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제되어야만 했다.

한편,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유럽공동체는 카라만리스의 집권 시기인 1957년에 이르러 유럽경제공동체(EEC)를 탄생시키며 그 다음단계로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무엇보다도 카라만리스는 이러한 전후 유럽공동체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의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EEC가 표방한 단일공동시장의 운영과정 속에서, 그리스의 경제적 자립성과 민주제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긍정적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무엇보다도 EEC의 단일공동시장 정책은 모든 회원국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민주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시장의 운영과정은 이와 같이 특정국가의 횡포를 봉쇄할 수 있는 민주제적 구조에 기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시장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그리스는 외세 개입의 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경제적 예측관계는 대체로 특정 국가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쌍무적 무역구조'로부터 기인한 바가 컸으므로, 유럽공동시장이 표방하는 '다자간 합의에 따른 개방적 무역구조'는 그리스에게 더욱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한 장기적 예측으로부터 자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지체되고, 반미감정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는 EEC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외교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카라만리스는 1959년 6월 8일 EEC 집행위원회에 공식 문서를 전달하며, 경제부 문에서의 제후협정 체결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공식 문서에서 그리스는 EEC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지원받는 것과 유럽의 공동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양측은 1960년 3월 21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첫 번째 공식협상을 시작하였다.¹⁶⁾

이후 몇 가지 안건에 대한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카라만리스는 소련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¹⁷⁾, 당시 EEC 내에서 협상을 주도하던 프랑스와 서독

서, 남유럽의 최전선에서 반공을 주도하는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5)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라만리스는 국방부 장관(1950년), 교통부 장관(1954년) 등을 역임하며, 전후 국가의 재건 및 발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기간 동안 이어진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 재건과정을 효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전후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이전 시기 그리스의 총리였던 파파고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국왕에 의해 1955년 10월 6일 그리스의 총리로 임명되었다.

16) 협상 다음날에는 그리스 내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협상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긍정적 기대의 보도를 쏟아내며,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반영하였다. K. Σβολόπουλος, Κωνσταντίνος Καραμανλής : Αρχείο, Γεγονότα & Κείμενα 4, (Ίδρυμα Κωνσταντίνου Γ. Καραμανλή, 2005), pp. 131~132.

17) 카라만리스는 그리스인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1950년대 그리스 담배 수출의 약 30%가 소련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EEC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리스가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에 편입될 수 있음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켰다.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후 서독과 프랑스 정부의 신속한 지지 표명이 이루어지면서, 협상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61년 7월 9일 그리스와 EEC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경제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협상의 결과, 그리스는 '경제 제휴 협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EEC 내에서 회원국에 준하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확정된 제휴 협정의 내용은 큰 틀에서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설립', '공동 농업정책의 수립' 그리고 '노동력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 의회 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가 설립되어, 그리스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는 EEC의 공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좀 더 민주적인 환경 속에서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는 제휴협정을 통해 EEC의 경제적 울타리에 들어가면서, 외세의 개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기반 형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제휴협정의 한계점과 우려의 시각 또한 분명히 존재하였다. 우선 그리스가 처음에 기대하였던 30억 달러의 원조 규모는 최종 협상결과 12억 5천만 달러로 급감하였고, 이는 그리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산업화를 위한 투자 금액으로써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폐지되지 않고, 점진적인 인하가 결정되면서 그리스의 공동시장 참여과정에는 크고 작은 제약이 발생하였다¹⁸⁾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정치권에서는 EEC와의 제휴협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하였다. 특히 그리스의 좌파 정당인 '좌파민주연합(Ενιαία Δημοκρατική Αριστερά, ΕΔΑ)'은 EEC와의 제휴협정이 또 다른 거대 세력으로서의 경제적 예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EEC와의 제휴협정은 그리스의 민주적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카라만리스에게 있어 EEC와의 경제제휴협정은 향후 그리스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인식되었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있어 EEC는 경제적 제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EEC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통합이라는 더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EEC와 제휴를 맺은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의 경제적 통합이 단일유럽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길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¹⁹⁾

18) 또한 그리스와 EEC측이 협상 막바지까지 이견을 보였던 차관 지원의 경우, 최종적으로 12억 5천만 달러의 금액이 향후 5년 동안 그리스에 제공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농업 특산품(담배, 와인, 건포도, 올리브 등)에 대해서는 1962년 11월 1일부터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1968년 7월 1일까지 완전히 철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Iacovos S. Tsalicoglou, *Negotiating for entry : the accession of Greece to the European Community*, (Brookfield : Dartmouth : Aldershot, 1995), pp. 11~13.

19) Γεωργίου Λ. Κοντογεώργη, *Η Ελλάδα στην Ευρώπη : Η Πορεία προς την Ένωση και η πολιτική του Καραμανλή*, (Χρήστος Γιοβάννης Α.Ε.Β.Ε), p. 40. 재인용.

위의 제휴협정체결 기념 연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카라만리스는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하여 그리스가 향후 유럽공동체와의 정치적 결속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길로 나아갈 것임을 암시하였다.

Ⅲ. 유럽공동체와의 단절과 민주화의 위기(1967-1974)

이와 같은 1961년의 제휴협정체결 이후 그리스는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휴협정의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이 시기에 카라만리스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1960년 키프로스의 독립과정에서 키프로스의 그리스 병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²⁰⁾, 그리스 국왕의 총선 부정개입으로 인한 국정 파행을 통해 그리스 내에서 카라만리스의 정치적 능력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설강가상으로 1961년의 총선 이후 카라만리스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나갔고,²¹⁾ 결국 1963년 11월 3일의 총선에서 요르고스 파판드레우(Γεώργιος Παπανδρέου)가 이끄는 ‘중도연합(Enosis Kentrou, EK)’에 패하게 되었다.²²⁾ 이후 카라만리스는 총리직을 즉각 사임하였고, 스스로 망명을 택하여 그리스를 떠나 프랑스로 향하게 되었다.²³⁾

한편, 1963년의 총선에서 승리하였지만 파판드레우는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파판드레우의 중도-좌파 정부는 그리스 국왕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불안한 정치적 상황은 서서히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파판드레우는 결국 1965년에 그리스의 국왕 콘스탄티노스 2세(Κωνσταντίνος Β΄)에 의해 해임되면서, 그리스의 정국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국왕이 종종 수상을 지명하고는, 반

20) 그리스의 총리로써 키프로스(Κύπρος) 독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카라만리스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키프로스는 영국, 그리스, 터키의 정상과 함께 모여 논의한 1959년 2월 11일의 ‘취리히 협정(Zürich Agreements)’과 곧바로 이어진 19일의 ‘런던 협정(London Agreements)’에 의하여, 1960년 8월 16일 독립을 성취하였다. 물론 키프로스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지만, 이는 그리스 국민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결말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민들은 80%이상의 그리스 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키프로스를 그리스의 영토로 병합시키는 것(Ενωσις, Enosis)을 지속적으로 바라왔기 때문이다. 카라만리스는 그리스 국민들의 오랜 염원에 따라, 영국, 터키와의 협상과정에서 키프로스의 병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키프로스 병합의 실패는 결국 총리에 대한 정치적 신임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카라만리스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21) 이러한 상황에서 ‘람브라키스 암살 사건’은 그에게 치명타를 입혔다. 1963년 5월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서는 당시 좌파 정당의 국회의원 이었던 요르고스 람브라키스(Γρηγόρης Λαμπράκης)가 그리스의 극우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야당의 지도자였던 파판드레우가 암살의 배후에 카라만리스가 있었다는 강력한 주장을 전개하면서, 심각한 정치문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의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을 통해 카라만리스의 정치적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2) 파판드레우가 이끄는 중도연합(EK)은 42%의 득표율로 138석을 차지하면서, 39.4%의 득표율로 132석을 획득한 민족급진연합(Εθνική Ριζοσπαστική Ένωση, EPE)에 승리하였다.

23) John S. Koliopoulos ; Thanos M. Veremis, *Modern Greece: A History since 1821*, (Malden, MA : Wiley-Blackwell, 2010), pp. 136~137

(反)국왕파 의회가 이를 다시 불신임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리스 정국의 불안정함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1967년 4월 21일 대령 파파도풀로스를 중심으로 한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결행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를 장악하였다.²⁴⁾ 그 후 파파도풀로스가 스스로 총리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의 암울한 군부독재시기(1967-1973)가 시작되었다. 군부정권의 시작과 함께 파파도풀로스는 이내 의회를 강제 해산하였고, 대대적인 국민 감시와 검열을 통한 통제를 강화했으며, 나아가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해 국외로 추방하거나 수감하였다. 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 그리스인들의 인권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상실되어 갔다.²⁵⁾

무엇보다도 그리스에서 군부독재의 시작은 곧 유럽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스 군부정권의 권위적 행태는 유럽공동체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유럽의회의 정무위원회 의장이었던 에도아르도 마르티노(Edoardo Martino)는 1967년 5월 8일 그리스의 군부독재에 대해 공식적인 첫 번째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의회는 그리스가 신속히 민주제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회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군부정권의 횡포가 심화되자, 결국 1969년 그리스의 유럽의회 강제 철수가 결정되었고, 1970년부터는 유럽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그리스와 유럽공동체의 모든 관계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 군부독재에 대한 대응 문제는 유럽공동체 내부로부터 민주화 이행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리스 문제를 계기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은 구체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운영 및 확장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법적 구속력을 회원국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공적 차원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70년부터 유럽공동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향후 공동체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민주주의 보증국(Guarantor of Democracy)’이라는 조항을 공식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²⁷⁾

한편, 유럽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리스는 국제적 고립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스로 하여금 또다시 미국의 힘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파파도풀로스의 군부정권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하며, 그리스 민주주의의 파괴를 조장하였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민주화의 동력을 상실하며, 군부독재 및 외세의 개입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되었다. 군부독재에 의한 미국의 재등장은 EEC와의 경제제휴협정을 통해 어렵게 구축해놓은 민주화의 기반을 파괴하였으며, 민주화를 위한 모든 단계적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았다.

24) 콘스탄티노스 2세도 쿠데타를 추진했지만, 정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파파도풀로스의 전횡으로 인해 12월 13일 역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군 다수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결국 국왕은 로마로 탈출하였다. 그 후 파파도풀로스는 스스로 총리에 올라 명실 공히 독재자가 되었다.

25) Glenn E. Curtis, *Greek Study 1*,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5), pp. 69~72.

26) Emma De Angelis, Eirini Karamouzi, “Enlargement 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EC’s democratic identity, 1961-1978”,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2016), p. 9.

27) Angelis, *Ibid*, pp. 12~13.

IV. 유럽공동체 정식 가입과 민주제의 확립(1974-1981)

한편, 1973년 11월 17일 아테네 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파파도풀로스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전개하며 군부독재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 11월 25일에는 파파도풀로스의 심복이었던 비밀경찰 장관 디미트리오스 요안니디스(Δημήτριος Ιωαννιδής)가 역으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파파도풀로스는 실각해 자신의 집에 연금되었다. 곧이어 또 다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페톤 기지키스(Φαίδων Γκιζίκης)가 터키의 키프로스 가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1974년 물러나면서, 그리스의 군부독재는 완전한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군부독재의 종식과 함께 카라만리스는 11년 동안 이어진 프랑스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그리스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귀국과 동시에 그는 곧 바로 신민주주의당(Νέα Δημοκρατία, ΝΔ)을 창당하였고, 그 해 11월 17일에 개최된 총선에서 압도적인 차로 승리하며²⁸⁾ 다시 한 번 그리스의 총리가 되었다. 두 번째 총리에 취임한 카라만리스는 가장 먼저 군부독재 시기에 단절되었던 유럽공동체와의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하였다. 11년간의 해외 망명생활과 군부독재시기의 경험은 카라만리스로 하여금 EEC와의 제휴협정을 체결했던 첫 번째 총리 재임기간 보다 더욱 강력한 유럽공동체와의 결속을 추진하게 하였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유럽공동체와의 공조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군부독재 시기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혼란스런 정국을 틈탄 군부독재의 집권은 그리스 역사의 단골소재였고, 그 때마다 그리스는 독자적으로 이러한 민주적 위기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병폐문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내부로부터 공고한 민주제가 형성되어야 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압력 및 공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될 그리스와 유럽공동체의 관계는 이전의 경제·실리적 차원의 협력관계에서 진일보한 것이어야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카라라만리스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한 1974년의 시기에는 훌륭한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었다. 우선 암울한 군부독재시기를 7년 동안 견뎌온 그리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이러한 기류는 정권의 신속한 민주화 과정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공동체가 민주적 가치를 상실한 국가와 공식적인 관계형성을 거부하고,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을 관계형성의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사실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착과정에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4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민주화 이행과정은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을 위한 과정과 필연적으로 연동되어 진행되어갔다.

이에 따라 1974-1975년 동안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들

28) 카라만리스의 신민당은 1974년 11월 17일의 총선에서 54.4%의 득표율로 220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민주화된 그리스의 첫 번째 집권정당이 되었다.

이 카라만리스의 주도를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는 강력히 추진되었다. 첫 번째로 취임 직후 카라만리스는 1974년 12월 8일 국민투표를 통해 1821년 독립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의 정치적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온 군주정을 즉각 폐지하였다.²⁹⁾ 전통적으로 그리스의 국왕은 의회해산권과 총리임명권, 그리고 법률제정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핵심이었으며, 이러한 권력이 반복적으로 남용되면서,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의원내각제의 실행은 항상 수많은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해묵은 군주정의 단호한 폐지를 통해 민주주의 확립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그리스는, 비로소 완전한 의미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군주제 폐지에 이어 카라만리스는 1975년 1월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한 군부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재판과정을 TV로 생중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확실한 과거사 청산을 단행하였다. 이른 바 ‘그리스의 닐른베르크 재판’이라고 불린 이날의 현장에서는 파파도풀로스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등, 군부독재정권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973년 아테네 과학기술대학의 시위 진압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며,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망명, 수감된 정치범들을 사면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 이들의 노력에 진정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스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카라만리스가 1974년 11월에 그리스의 공산당(Κομμουνιστικό Κόμμα Ελλάδας, KKE)을 합법적 정당으로 인정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카라만리스는 미국의 개입 및 냉전전략으로 형성된 그리스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 년 동안 그리스에서 자행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인권유린은 그리스의 민주주의 상실과 후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대전 이후 미소 냉전체제와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그리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그리스 공산당은 비로소 합법적 정당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를 통한 민주적 정당정치 회복은 그리스 내에서 완전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 민주제 이행과정과 동시에, 카라만리스가 총리로 취임한 이듬해인 1975년 6월 12일에 그리스는 유럽공동체(EC)에 정식 가입을 요청하며 유럽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 카라만리스는 9개의 EC 회원국 대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그리스의 EC 가입과정이 강력한 민주주의적 요소와 직결되어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리스는 지난 오랜 시간동안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길로 연결되어온 유럽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공식 가입 요청은 15년 전에 시작된 나의 정책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단지 경제적 이유로만 정식 가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의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강화 및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³⁰⁾

29) 1974년 12월 왕정폐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의 69.2%가 찬성하면서 왕정이 폐지되었다.

30) Eirini. Karamouzi, “A Strategy for Greece : Democratiz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1974-1975”, *Cahiers de la Mediterranee*, Vol. 90(2015). p. 1.

이와 같이 카라만리스는 그리스의 가입 문제를 자국 및 유럽공동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무엇보다도 EC의 확장 과정에서 민주적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요람’으로써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EC 가입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주었다.³¹⁾ 실제로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은 그리스의 정식 가입 요청에 대해 유럽공동체가 “뿌리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였고,³²⁾ 후에 자신의 회고록에서는 EC의 확장과정에서 “모든 민주주의의 어머니인 그리스를 유럽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³³⁾라고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현실적 측면에서, 군부독재 종식 이후 2년 동안 그리스의 안정된 민주화 이행과정을 지켜본 EC의 9개 회원국들은 그리스의 가입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카라만리스는 이전 1961년 제휴 협정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능력을 발휘하였다. 11년간의 프랑스 망명생활동안 형성된 카라만리스의 정치·외교적 네트워크는 그리스의 EC 가입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였다. 특히 프랑스가 그리스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도움을 제공한 것은,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형성해온 카라만리스의 개인적 역할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따라서 이어진 일련의 협상과정들을 통해 1979년 그리스의 EC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고, 1981년에 이르러 모든 가입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그리스는 당초 목표했던 시기보다 3년을 앞당겨 정식 가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1981년 정식 가입은 1961년 유럽경제공동체와의 경제제휴협정과 비교하여 더 높은 차원의 관계형성을 이루어 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정식 가입은 EC 내에서 그리스가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부여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실제로 실리적 차원의 경제 협력에만 머물렀던 1961년의 제휴 협정과는 달리, 그리스는 이제 EC 내에서 회원국들과 완전한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그리스의 기나긴 민주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EC 가입승인을 직전에 둔 1978년에 카라만리스는 유럽통합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샤를마뉴 상(Charlemagne Prize)’³⁴⁾을 수상하였는데, 이 기념연설에서 유럽통합과 그리스의 민주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통합된 유럽은 진정한 ‘민주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적 구조와 작동원리를 통해, 그

31) Angelis, Ibid, p. 20.

32) *Statement by L. de Guiringaud, 31 May 1977*, Ίδρυμα Κωνσταντίνο Γ. Καραμανλή ; Angelis, Ibid, p. 20. 재인용.

33) Serge. Berstein, Jean-Francois. Sirinelli, *Valery Giscard d'Estaing et l'Europe* (Paris : Armand Colin, 2005), p. 135. ; Angelis, Ibid, p. 20. 재인용.

34) 샤를마뉴 상은 전후 초국가적 유럽통합 형성 과정에 기여한 인물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독일 아헨(Aachen) 시청이 상을 주관한다. 상 이름은 프랑크 왕국의 군주인 샤를마뉴 대제가 아헨에 거주했고 아헨에 그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이다. 시상식은 매년 주님 승천 대축일에 아헨 시청 청사에서 열린다. 역대 수상자로는 ‘장 모네(Jean Monnet),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 발터 할슈타인(Walter Hallstein) 등이 있으며, 그리스인들 중에 이 상을 수상한 인물로는 카라만리스가 유일하다.(2017년 기준)

것은 각 국의 민주체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유럽은 통합을 통해서 민주적 제도를 혁신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일 개별 국가 안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통합된 유럽의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럽통합이 가속화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통합과정에 시간이 지체되고, 각 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통합 유럽의 꿈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³⁵⁾

위의 연설에서처럼 결과적으로 안정된 민주화 이행과정은 그리스가 유럽공동체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동력임과 동시에 필수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역으로 공고한 민주주의적 이념으로 통합된 유럽공동체는 이러한 그리스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속·유지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이처럼 그리스의 EC 정식가입은 향후 유럽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각인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내에서 완전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외세의 개입 혹은 군부독재의 재등장 가능성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공고한 민주주의의 정치·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본고에서 유럽공동체와의 장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한 그리스와 유럽공동체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속에서, 그리스의 점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져 왔음을 고찰하였다.

가장 먼저, 그리스는 만성적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외세의 개입 및 민주적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전후 유럽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61년 그리스와 EEC의 경제제휴협정은 그리스의 민주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후 군부독재정권의 등장으로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은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내 유럽공동체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 비록 민주화의 원점 단계로 회귀하였지만, 그리스는 이후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며 새로운 전환국면을 마련하였고, 이를 계기로 비로소 안정된 민주화 이행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그리스와 EC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은 EC 정식가입과 함께 연동되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카라만리스의 접근방법과 전략은 그리스 민주화 과정의 중요한 외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그리스와 유럽공동체의 관계형성 및 지속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치·외교적 가교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그리스는 긴 호흡 속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안정된 민주화 이행과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결국 그리스의 민주화 과정은 이와 같이 민주주의 강화에 대한 그리스와 유럽공동체의 동시적 고민이 투영된 결과물이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영향력은 비단 그리스의 내적 영역으로만 한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35) *A Speech Delivered at the Town hall of Aachen(1978), The Ideal of a United Europe.*

무엇보다도 그리스의 정식 가입 이후 유럽공동체의 확장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가입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이자, 필수조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 정식가입은 그리스와 같이 자국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민주화와 연동된 그리스의 유럽공동체 가입 과정은 향후 EC 가입을 목표로 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성공적인 선례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공동체에 대한 카라만리스의 접근방법에는 분명한 비판요소가 존재하는 것이었다. 특히 유럽공동체와의 공조를 통해 그리스 내의 모든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카라만리스의 확고한 신념은 큰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1974년-1981년의 집권 시기 동안 카라만리스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유럽 표준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점차적으로 그리스 내의 정치가들과 대중들로부터 유럽에 대한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으로 비판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카라만리스는 유럽 표준화 정책을 더욱 강화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대 정치세력의 논리와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 그리스가 유럽공동체에 완전히 종속·동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견잡을 수 없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 치러진 총선에서 카라만리스가 이끄는 신민당이 패배함으로써,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Πανελλήνιο Σοσιαλιστικό Κίνημα, ΠΑΣΟΚ)’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Ανδρέας Παπανδρέου)가 그리스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이어진 집권 시기 동안 파판드레우는 이전 정부의 외교적 과오를 비판함과 동시에 자주적·독자적 외교 노선을 강력히 주창하며 유럽공동체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처럼 유럽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강한 집착을 보인 카라만리스의 확고한 신념은 역설적으로 1980년대 이후 그리스와 유럽공동체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에 대한 카라만리스의 확고한 신념은 이후 그리스 정계에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계승해야 할 숭고한 정치적 유산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척결의 유산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카라만리스의 정치적 유산이 앞으로 진행될 그리스와 유럽연합의 관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속적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Αλαβάνος. Αλ. *Κωνσταντίνος Καραμανλής και η Ευρωπαϊκή Πορεία της Ελλάδας*. (ΠΑΤΑΚΗΣ, 2000).

Κοντογεώργη. Λ. Γεωργίου. *Η Ελλάδα στην Ευρώπη : Η Πορεία προς την Ένωση και η πολιτική του Καραμανλή*. (Χρήστος Γιοβάνης Α.Ε.Β.Ε).

Σβολόπουλος. Κ. *Κωνσταντίνος Καραμανλής : Αρχείο, Γεγονότα & Κείμενα 4*. (Ίδρυμα Κωνσταντίνο Γ. Καραμανλή, 2005).

Curtis. E. Glenn. *Greek Study 1*.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1995).

De Angelis. Emma & Karamouzi. Eirini. "Enlargement and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EC's democratic identity, 1961-1978".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2016).

Gkartzonikas. Paris. "The effects of the Marshall Plan in Greece, Turkey and Portugal". *Greek Foreign Affairs Council*.

Karamouzi. Eirini. "A Strategy for Greece : Democratiz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1974-1975". *Cahiers de la Mediterranee*, Vol. 90(2015).

Kassimeris. Christos. "United States Intervention in Post-War Greek Elections : From Civil War to Dictatorship". *Diplomacy & Statecraft*(2009).

Koliopoulos. S. John & Veremis. M. Thanos. *Modern Greece: A History since 1821*. (Malden, MA : Wiley-Blackwell, 2010)

Politi. Christina. "American Intervention in Greece 1946-64". *Europe in the Cold War*.

Tsalioglou. S. Iacovos. *Negotiating for entry : the accession of Greece to the European Community*. (Brookfield : Dartmouth : Aldershot, 1995).